

中原地方의 舊石器文化

이 용 조*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 지표조사 유적 |
| III. 발굴유적 | IV. 결 론 |

I. 머리말

북한 학자에 의해 찾아지고 발굴된 옹기 굴포리유적(1963년)과 손보기교수와 연세대학교 박물관팀이 발굴한 공주 석장리유적(1964년)의 구석기문화 연구·조사결과는 우리 역사의 상한을 종래까지의 신석기시대에서 구석기시대로 높여 주는 역사인식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으며, 그래서 구석기연구는 광복 전/후의 역사해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이용조, 1992).

이러한 연구활동들은 자연적으로 중원지방으로 확대되어, 1973년의 제원 점말 용굴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86년 단양 구남굴 발굴에 이르기까지 중원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구석기유적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이 지역에 동굴유적과 한데(아외)유적이 고루 분포됨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천혜적인 자연 조건이 독특한 중원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천혜적인 자연환경은 먼저 지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백두대간의 주된 산맥인 태백산맥이 있고, 이 태백산맥의 태백산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이 형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와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갈라져 나온 차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발달되어, 경기도·강원도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김현길, 1984 :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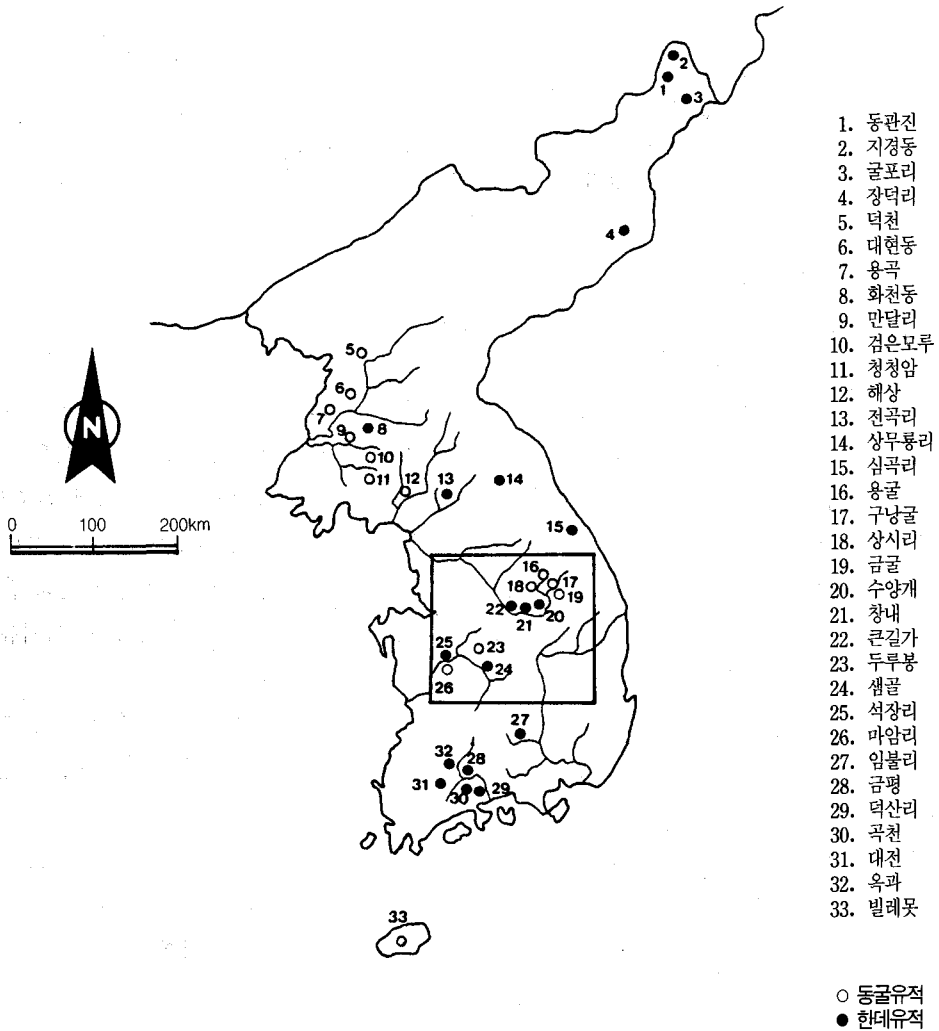
중원문화권역은 이러한 산맥안에 둘러싸인 지역 즉, 동쪽으로는 태백산과 오대산, 북쪽으로는 오대산에서 차령까지를, 서쪽으로는 차령에서 계룡산을 경계로 하여 추풍령까지, 남쪽으로는

*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장

추풍령에서 태백산의 범위로 상정할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한다.

이러한 특징은 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동북쪽을 흐르는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남쪽을 흐르는 덕유산 일대에서 발원한 금강의 2강이 권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원지방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구석기시대의 유적중 약 1/3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중원문화의 특색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그림 1> 우리나라와 중원지방의 구석기 유적 분포도

그럼으로 우리 중원지방의 구석기시대는 각 유적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성격과 시대적으로 전기 구석기시대(약 70만년전)에서 부터 후기 구석기시대(약 2만년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연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 구석기 학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원문화의 학문적 위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II. 지표조사 유적

고고학에서의 첫 걸음은 지표조사로 시작된다. 중원지방에서 지표조사로 찾아 확인된 유적이 많이 있는데, 크게 금강유역과 남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강유역

순서	유적명	행정구역	출토유물	자료
1	초왕리	충남 공주군 장기면 초왕리	주먹토끼	손보기, 1969
2	구절골	충남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	가족갈날주먹도끼	〃
3	유구면	충남 공주군 유구면	찌르개	〃
4	연기	충남 연기군	돌대패	〃
5	삼정리	충남 대덕군 산내면 삼정리	꺾개	이용조, 1980
6	황호리	충남 대덕군 산내면 황호리	예술품	〃
7	독바위	충남 대덕군 산내면 황호리	꺾개	〃
8	조산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찍개	〃
9	형강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자르개/밀개	〃
10	진사골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몸돌-사냥돌	〃
11	이득이	충북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예술품	〃
12	법수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찍개/꺾개	〃
13	사탄리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사탄리	꺾개	〃
14	방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호리	꺾개	〃
15	막기	충북 옥천군 안내면 막지리	꺾개	〃
16	개신동	충북 청주시 개신동	꺾개/사냥돌	이용조, 1976

나. 남한강 유역

순서	유적명	행정구역	출토유물	자료
1	조동리	충북 증원군 동량면 조동리	꺾개등 다수	1992년조사
2	용고리	충북 증원군 동량면 용고리	찍개등 다수	'90-'92조사
3	용탄동	충북 충주시 용탄동	꺾개등 다수	1992년조사
4	금제	충북 충주시 금릉동	꺾개등 다수	1992년조사
5	금릉	충북 충주시 금릉동	몸돌등 다수	1992년조사
6	북진리	충북 제천시 금성면 북진리	주먹도끼등 다수	'91-'92조사

III. 발굴유적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유적의 성격과 문화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발굴유적의 성격에 따라 동굴에서 살면서 문화를 형성하게 된 「동굴유적」과, 강을 중심으로 밖(open)에서 생활하며 만든 「한대유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가. 동굴유적

중원지방은 옥천계에 형성되는 석회암지대에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동굴이 많이 분포되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발달된 동굴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에게는 좋은 안식처 구실을 하게 되었고, 석회암동굴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잡아 먹고 남긴 뼈화석과 뼈연모들이 보존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다른 곳의 동굴들과는 다르게 많은 뼈화석과 사람뼈들이 발굴되어, 구석기문화의 주인공을 알 수 있게 되거나, 또한 이 층위들이 층서로 있어서, 시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점을 갖고 있다.

1. 공주 마암리동굴

김원용(전 서울대, 현 한림대학교) 교수에 의해 밝혀진 유적으로(1966년), 공주 석장리유적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유적이다.

이 유적은 시굴조사로 밝혀져, 지표와 그 아래층에서 거북모양 몸돌과 격지석기가 출토 되고 있다. 또한 직접떼기로 만든 외날찍개와 찌르개를, 응기 굴포리유적과 중국의 구석기가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석장리 위층(후기)의 석영반암제 격지석기와 유사하며, 유적의 연대가 후기 구석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은 매우 주목된다(김원용, 1967).

마암리유적은 앞으로 정밀한 재조사에 의해 정확한 층위의 규명과 아울러, 이를 근거로 한 유물의 특징을 학계에 보고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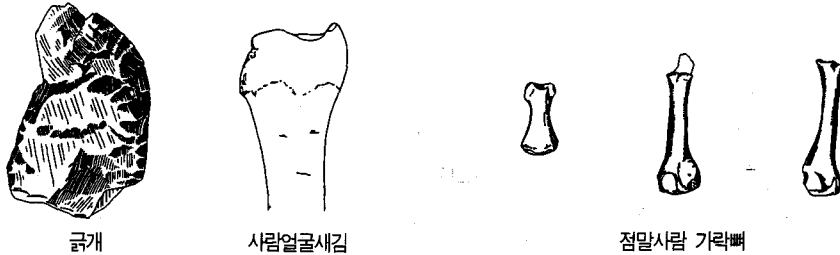
2. 제천 점말 용굴

제천군 송학면 포전리 점말에 위치한 이 유적은 손보기교수와 연세대학교 박물관팀이 1973년~80년까지 8차에 걸쳐 연차 발굴을 실시하였다.

남한강유역과 중원지방의 구석기연구에 박차를 가한 제천 점말 용굴의 중간보고(손보기, 1975)에 이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점말 용굴의 층위는 크게 7개로 구분하고 있다(손보기, 1980).

문화층으로는 III층(흰 모래층)이 제3빙기(리스)로 전기 구석기에 해당되며, 제3간빙기의 IV층

(붉은색 찰흙층)에서 사냥으로 잡힌 큰 짐승의 뼈화석과 연모들이 많이 발굴되었다(손보기, 1988). 특히 이 층에서 발굴된 털코뿔이의 앞팔뼈에 새겨진 사람얼굴의 모습은 당시 문화와 예술에 관한 큰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손보기, 1989/그림 2).



〈그림 2〉 제천 점말 용굴 출토유물

V 층(갈색모래 찰흙층)은 처음 실시한 U/Th/Pa 연대측정으로 66,000B.P.로 나타나 제4빙기(뷔름)의 시기로 되며, 추운 동물(La faune froide)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VI 층은 방사성 탄소(¹⁴C) 연대측정으로 18,660B.P. 층이 확인되었으며, 이 층들의 동물상·식물상을 통한 분석이 전개되었다.

또한 동굴곰·짧은 꼬리 원숭이 등과 같은 표준화석에 대한 형질적인 계측과 다른 유적의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연대 결정의 기준을 삼고 있다(손보기, 1975).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종래의 구석기문화 연구에 석회암동굴이 갖는 여러 자료를 통한 층위구분, 동·식물상의 비교연구 등 해석상에 커다란 과학적 기준을 세웠다(손보기, 1974 : 손보기/한창균, 1989).

3.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군 가덕면 노현리 두루봉은 결정질 석회암이 잘 발달된 곳이다.

이미 1964년부터 석회암 채취로 많이 파괴된 이두루봉에서, 많은 사슴과의 뼈·원숭이 아래턱·큰곰 송곳니 등이 잘 손질된 뼈연모와 함께 원상태(*in situ*)로 홍적토에 있었다(그림 3).

그래서 충북대학교 박물관·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바로 발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충북대에서는 1976~'83년까지 모두 10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제2굴/새굴/처녀굴/홍수굴을 찾게 되었다.

1) 제2굴

1976년~'78년까지 3차례 발굴된 제 2굴에서는 불을 피운 화덕자리와 숯, 망치와 가죽을 벗기거나 살을 자르는데 사용되었을 긁개와 자르개 등 석기들을 찾았다.

이 동굴에서는 지금은 멸종된 칩소·쌍코뿔이·크로쿠타 크로쿠타·큰 원숭이를 비롯한 3문



〈그림 3〉 청원 두루봉 층위 및 출토유물

시기가 3월 하순쯤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세계 선사학계에서 새로운 연구경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구고고학(demographic archeology)의 방법으로 출토된 동물뼈를 분석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사회구성을 재구(再構)하면, 제 2굴에서 적어도 5식구가 2,780일 이상 동굴 안에서 살았던 문화모형(model)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제 2굴의 사람들은 동물상 가운데 주된 동물인 사슴 이빨의 분석으로, 사슴 사냥은 9·10월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조, 1983 : 1984a).

2) 새굴

두루봉의 정상에서 새로 찾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새굴」은 석회암 발파작업으로 잠들었던, 신비를 충북대 박물관 박물관대원들에게 고스란히 주었던 굴이다.

각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동아줄로 몸을 매고 발굴한 당시(1980년)를 회상하면, 세계 고고학 발굴 역사상 이러한 조사도 있었을까 하는 깊은 감회에 젖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찾아진 큰 성과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구석기유적에서 정식발굴로는 처음 찾아진 옛코끼리(*Elephas antiquitas*) 상아(길이 62cm, 지름 7.6cm)는 당시의 기후와 문화·고동물물을 연구하는 구석기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약 1㎡ 범위의 굴의 구석 부분에서 사슴머리뼈가 13점이나 몰려 있었고, 같은 개체의 사슴뿔을 갈아서 만든 치레걸이(목걸이) 2점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슴숭배(deer cult) 믿음에 따른 주술과 사유(思惟)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 큰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이용조, 198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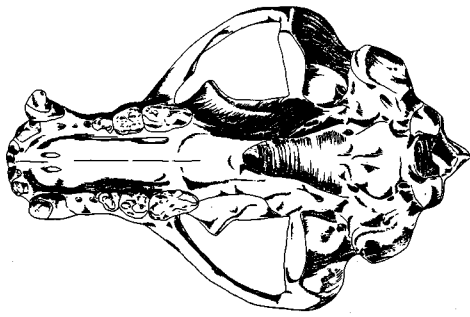
3) 처녀굴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아니한 굴이라 하여 「처녀굴」로 명명되어진 이 굴에서는 세계의 자랑거리인 완전한 개체의 동굴곰(*Ursus spelaeus*)이 발굴되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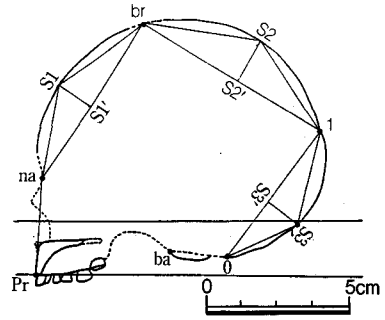
7강 15목 28과 37속 46종이 밝혀져, 지금까지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종의 짐승이 찾아졌다(그림 3). 이들 짐승은 더운 시기에 살던 더운 짐승(la faune chaude)으로 중기 홍적세의 따뜻한 시기로 해석된다.

그런데 두루봉사람이 살던 7층에서 꽃가루 검사결과 진달래(ERICACEAE)꽃가루가 바로 굴입구의 모서리에서, 한꺼번에 157개나 검출된 사실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성을 던져 주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진달래나무가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이어서, 알카리성 토양인 두루봉일대에는 자생하여 살 수 없기에, 사람이 일부러 꺾어다 집자리인 동굴을 예쁘게 꾸미려는 미의식의 표현행위로 해석되며, 그



〈그림 4〉 청원 두루봉 처녀굴출토 동굴곰



S1 : Frontal Arc : 1300(mm), S1' : Frontal Chord : 1100
 S2 : Parietal Arc : 1360 S2' : Parietal Chord : 1220
 S3 : Occipital Arc : 1160 S3' : Occipital Chord : 960

〈그림 5〉 청원 두루봉 홍수굴출토 홍수아이 머리 외형

곰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상적인 골격을 갖춘 거의 완전한 1마리 형태이어서, 당시 문화해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러한 동굴곰뼈의 정가운데 큰곳 사슴뿔을 놓고 곰의 머리뼈와 긴 뼈들을 동쪽으로 향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열되었음이 발굴결과로 밝혀져, 당시에 의식(儀式)을 집행한 곳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인류학·신화학·민속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사람의 사유(思惟)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곳에서 나온 또다른 많은 동물화석 중 거의 완전한 개체의 쌍코뿔이는 문화해석에 중요한 자료로 당시 기후는 더운 것으로 해석된다(이용조, 1988a)

4) 홍수굴

홍수굴은 1982년 12월~'83년 1월까지 10차 발굴로 조사되어 완전한 사람뼈와 석기/동물화석이 발굴된 가장 이상적인 구석기유적의 문화성격을 지닌 동굴이다.

홍수굴은 두루봉현장의 한홍석회 김홍수 전무의 제보로 발굴하게 된, 사연이 깊은 두루봉의 마지막 발굴조사이며 사람뼈를 찾음으로서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는 그 분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사람이름으로 유적 이름을 붙여, 「홍수굴」이라 명명하였다.

홍수굴에서 찾아진 2개체의 사람뼈와 홍수굴의 여러 층위에서 많은 수의 전형적인 구석기유물이 발굴되어서,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의 체계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홍수굴에서 출토된 홍수굴 1호 사람은 체질 인류학적분석으로 보면, 5살 정도로 헤아려지며 머리 크기는 1,200~1,300cc(그림 5), 키는 110~120cm 정도이다.

홍수아이의 머리뼈는 좁고 길며(Dolichocrany), 높은 머리(Hypsicrany), 특히 윗머리뼈의 굽은 길이는 매우 긴 가운데형 얼굴이다. 라 퀴나(La Quian)아이와 렉포(평양부근)아이의 윗머리뼈들과 견주어 볼 때 홍수아이가 훨씬 큼을 알 수 있고, 이 길이는 평양 만달사람 어른뼈의 잔 값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약 4만년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홍수아이는 머리뼈 잔 값의 결과로 현대인과 선사인(후기

홍적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이용조/박선주, 1991 : 박선주/이용조,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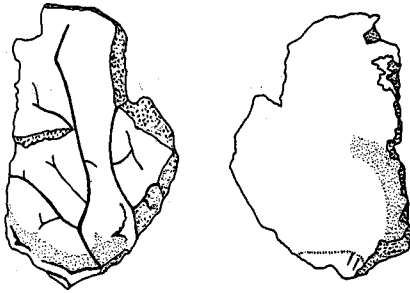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구석기인의 이동과 우리 조상에 대한 의문을 풀어 줄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으로 여겨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의 기원 문제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4. 단양 상시 바위 그늘

1981년 7월~8월에 걸쳐 손보기 교수와 연세대학교 박물관팀이 발굴한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에 있는 유적이다.

이 유적에 있는 3개의 바위그늘은 모두 시기를 다르게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1그늘-구석기, 2그늘-신석기~청동기, 3그늘-늦은 구석기~신석기시대의 문화가 있음이 밝혀졌다.

1그늘의 각 문화층에서는 모두 짐승화석과 뼈연모가 출토되었으며, 5·7·9층에서는 석기가, 그리고 5층에서는 사람뼈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특히 5층에서 출토된 사람뼈는 최소 2사람분임을 알 수 있다(손보기, 1984a).



〈그림 6〉 단양 상시 슬기사람 머리뼈
(안쪽-左, 겉쪽-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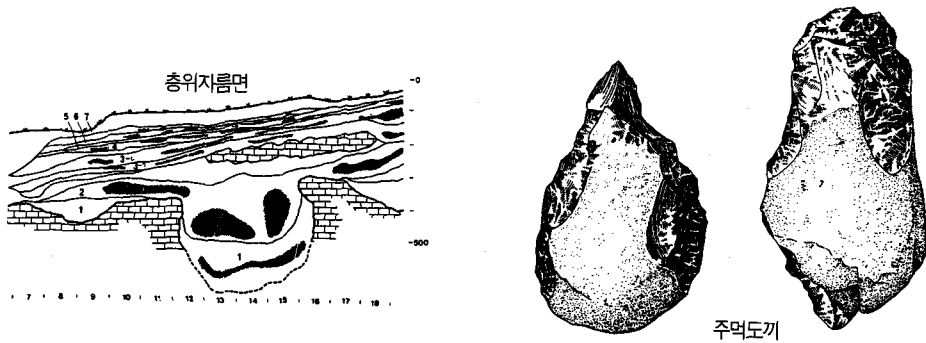
뼈의 특징으로 보아 슬기슬기사람(*Homo sapiens sapiens*)과는 완전히 다르고, 네안델탈사람과 흡사한 슬기사람(*Homo sapiens*)의 특징으로 보이고 있어, 이를 “상시 슬기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키 156~158cm쯤 되는 20살이 넘는 상시사람은 남한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슬기사람으로서, 당시 인류의 진화과정을 밝혀 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손보기, 1985b : 손송이, 1988 /그림 6).

5. 단양 금굴

단양군 매포읍 도담리에 있는 석회암 동굴인 단양 금굴은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일환으로 1983년~85년까지 3차에 걸쳐 손보기 교수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손보기, 1984b : 1985a).

남한강의 흐름을 바라보는 곳에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 금굴의 해발높이는 135m이며, 남쪽 입구의 굴 너비는 5~8m, 천정 8~9m높이로 서북쪽으로 26~28m들어가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꺾여 68m나 더 이어지는 이상적인 굴이다.

발굴·조사결과 이 유적은 전기 구석기시대(약 70만년전)부터 청동기시대(약 3천년전)까지의 선사시대 전 시대에 걸친 유물층이 발굴되어, 한 유적에서 각 시기의 층위에 대한 자연환경 자료와 석기의 발달을 계통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크게 주목된다.



〈그림 8〉 단양 금굴 충위 및 주먹도끼(1 문화층)

발굴결과로 밝혀진 7개 문화층 가운데 전기에 속하는 1문화층(VIII지층), 2문화층(VII지층), 에서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기 구석기문화인 아베빌리양 형식의 문화 특징이 계속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8).

중기 구석기에는 아舍利양·르발루아 형식의 석기와 동물화석이 3문화층(IV₁~IV₂지층)에서 발굴되었는데, 두께로 보아 금굴에서는 가장 긴 동안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후기 구석기층(4문화층)에는 짧은 시기동안 살았고, 중석기(5문화층)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손보기, 1985).

이와 같은 5개의 구·중석기 문화층 위에 빗살무늬토기(6문화층)와 민무늬토기층(7문화층)이 있는 금굴유적은 적어도 7개의 문화층이 밝혀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유적(type site)으로 들 수 있다. 더우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문화가 이뤄졌고, 그 역사의 서막을 올린 유적으로 우리 중원문화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잘 발달된 선사문화가 충위를 이루면서 한 유적에 있는 것은 세계 선사 학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발굴이 다 되지 못한 구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단양 구남굴

매포중학교 임광훈 선생의 제보로 파괴·교란되지 아니한 완전한 상태로 찾아진 구남굴은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에 있는 석회암동굴로, 그간 2차(1986:1988)에 걸쳐 필자를 중심으로 한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2차에 걸친 47일간의 발굴로는 굴 전체(길이 약 140m)의 너비와 유물출토 범위로 볼 때, 매우 한정된 범위(약 42㎡)에만 발굴이 진행되었고, 또한 충위 발굴도 굴 바닥에 이르지 못하여, 전체 퇴적층위를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2차까지의 발굴결과는 전체 충위가 8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뼈(그림 7)와 석기·뼈연모 등의 문화유물 및 많은 동물화석이 제 2퇴적층(3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이 3층이 구남굴의 주된 문화층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7〉 단양 구녕굴출토 사람 발가락뼈

한편 동물상의 종적 구성은 앞으로 발굴이 더 이루어져야만 정확할 것이나, 지금까지 2차의 조사에서 밝혀진 동물의 최소마리수(MNI)는 짧은 꼬리 원숭이 1마리·사슴 46마리·곰 5마리·호랑이 2마리·시라소니 2마리·오소리 6마리·담비 1마리·새 1마리 등 64마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짧은 꼬리 원숭이는 이빨의 모양과 크기 비교에서 *M. mulatta*와는 전혀 다른 종이며, 오히려 *M. robustus*·*M. fuscata*와의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홍적세 중 따뜻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적으로 고립되었던 종으로 여겨진다(이용조/박선주/우중윤, 1991).

앞으로 구녕굴은 연차적으로 계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 이 구녕굴이 세계 구석기 학계에 차지하는 올바른 위치를 밝혀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데유적

충북의 두 젓줄인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가 있는 중원지방은 물흐름이 완만하고 강굽이가 있어서 많은 구석기유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재로서도 좋은 이 지역의 돌들이 석기제작에 편리하여, 훌륭한 유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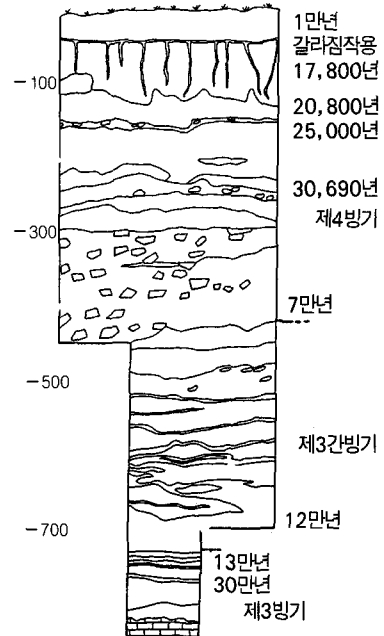
1. 공주 석장리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석장부락의 금강북안에 위치한 이 유적은 손보기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세대학교 박물관팀이 1964년~1974년까지 10차례 발굴하였고, 이어서 한국 선사문화연구소(소장 손보기)에서 90년/92년에 발굴하여,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연구사에 중요한 학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적은 크게 2개지구로 나누어지는데, 금강의 흐름으로 보아 하류쪽이 I 지구 즉 서쪽에 있으며, II 지구는 처음 발굴된 I 지구에서 동쪽으로 130m 떨어진 단구에 있다(손보기, 1967).

I 지구는 II 지구보다 늦은 1967년부터 발굴이 되어, 후기 구석기시대의 집터(석장리 I 지구 제1호 집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II 지구는 석장리를 맨 처음 발굴한 1964년부터 조사되어, 27개의 지층에서 전기/중기/후기 구석기의 12개



〈그림 9〉 공주 석장리 층위 자름면

구석기 문화층이 층위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그림 9). 손보기 교수는 각 층위에서 출토된 석기의 특징과 구성에 따라 문화층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손보기, 1968 : 1970 : 1972 : 1973a : 1973b : 1975b : 197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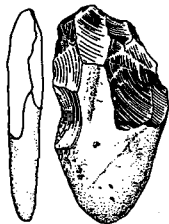
번 호		문 화 층(이름)	시 기
문화층	지 층		
1	27	외날찍개	전기 구석기
2	21	주먹괘이/자르개	〃
3	19	양쪽찍개/긁개	〃
4	17	주먹도끼/자르개	〃
5	15	주먹도끼/양쪽찍개	〃
6	15a	우뚝잡이 긁개/자르개	〃
7	13	작은 격자석기	중기 구석기
8	12	찌르개/긁개	〃
9	10	자갈돌 찍개	〃
10	8	가파른 긁개/찌르개	후기 구석기
11	6	긁개/찌르개	〃
12	5	돌날몸돌	〃

손보기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로 제1문화층(27지층) → 제1간빙기 → 전기 구석기로 설정하여, 제6문화층을 제3간빙기의 전기 구석기의 최종단계로 보고 있다. 특히 제4문화층은 아베빌리양 형식의 주먹도끼가, 제5문화층은 아슐리양 전통의 주먹도끼를 보고하고 있다(손보기, 1972 : 1973b : 1978a).

그 다음에 오는 제3간빙기와 제4빙기 I / II 빙운기 사이는 제 7/8/9문화층으로, 석기제작 수법이 발달되었는데, 특히 제9문화층(자갈돌 찍개문화층)은 석장리유적의 발굴 계기를 만든 층이어서 학사적 위치를 갖고 있다(그림 10).

이 문화층의 석기제작에는 클락톤수법과 르발루아수법이 이용되었으며, 라끼나(La Quina) 유적의 석기와 비교되고 있다. 그리고 이 층에서는 석기를 만들던 곳이 드러나, 제작수법의 발달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알게 되었다(손보기, 1968).

여기에 이어서는 제4빙기 III · IV 빙한기는 제10/11/12문화층과 제1지구 새기개/밑개문화층(손보기, 1970)의 집터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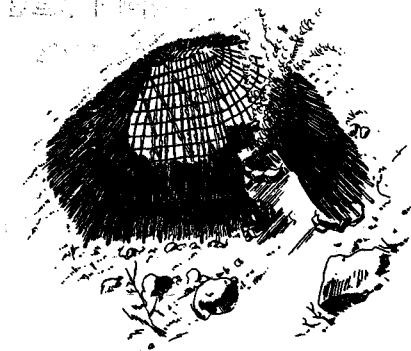


긁개

<그림 10> 석장리 중기 구석기 출토유물

이 집터에서는 불뎀자리/기둥자리/문돌들이 발굴된 약 60㎡의 크기이어서, 8~10명이 오랜동안 약 28,000 B.P. 에 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손보기, 1973a : 1973 b/그림 11).

이러한 석장리유적의 발굴조사는 우리 구석기학 연구에 개척적인 공헌을 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구석기



〈그림 11〉 석장리 집터 복원도

하는 기념관을 세울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2. 청원 샘골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샘골부락에 있는 이 유적은 필자를 중심으로한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이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발굴로, 유일하게 발굴(1978년)한 유적이다.

출토된 후기 구석기의 용도 비를 보면 전체 연모의 3/4이 부엌·조리용으로, 당시 사람들은 주로 벗기는(scraping) 행위를 많이 하는 유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석기의 사용 흔적에 따른 분석결과 약간 사용한 것이 전부이고, 유물출토의 층위가 얇은 것으로도 이곳에서는 오래 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음조,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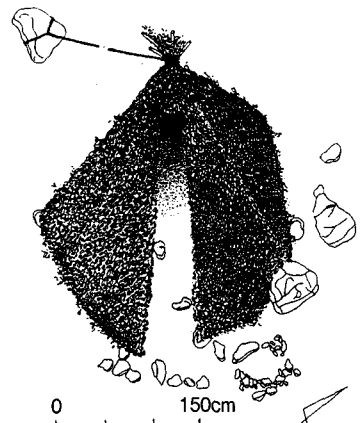
이 유적에서 출토된 배모양 석기는 공주 석장리·단양 수양개·승주 곡천·화순 대전유적·평양 만들 등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되어, 일본 구주지방의 배모양 석기 전파에 중요한 자료로 제시된다.

3. 제천 창내

제천군 한수면 사기리에 위치한 이 유적은 필자가 발견·보고하여서(1980년), 충주댐 수몰지구 조사의 일환으로 1982~1983년에 박희현 교수가 발굴·조사하였다.

남한강 본류와 창내(제천천)와의 두물머리의 해발 88m에 위치한 창내유적은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유물층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세운 집터(막집)를 발굴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 층에서 후기 구석기시대(II층) 특히 오리나시앙 수법과 비늘식잔손질로 만든 둥근 밀개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3~4명 크기의 집단이 당김돌을 이용한 약 10㎡의 사냥용 막집(hun-



〈그림 12〉 제천 창내 막집 복원도

ting camp)을 세우고 살았음이 밝혀졌다(그림 12).

이들은 출입문 바로밖의 화덕에 불을 피우고 생활하였으며, 따 먹었던 자료들인 복숭아와 같은 열매가 발굴되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규명에 보다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박희현, 1983 : 1984 : 1989 : 1990).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완전하게 발굴된 집터로 전남 화순 대전집터(이용조·박선주·윤용현·우종윤·하문식, 1992 : 이용조·윤용현, 1992a)와의 비교연구가 크게 기대된다.

4. 제천 큰길가

충주댐 건설로 조사된 제원군 한수면 명오리에 있는 큰길가유적도 1980년에 필자가 발견·보고하여, 1983~1984년 2회에 걸쳐 최무장 교수(건국대)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었다.

강굽이가 옮겨지면서 강의 흐름으로 유적이 깎여진 큰길가 유적은 남아있는 유구 범위가 적기는 하여도, 중부지역 구석기문화의 대표적 유적 가운데 하나인 전곡리출토의 주먹도끼와 연결되는 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최무장, 1984 : 1986).

5. 단양 수양개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의 해발 132~137m되는 범위에서 수양개유적은 충주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1983~'85년까지 필자를 중심으로 한 충북대학교팀이 발굴하였다. 4차에 걸쳐 발굴된



〈그림 13〉 단양 수양개 출토유물

면적은 모두 1,250㎡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넓게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다(이용조, 1984b : 1985 : 1988 b : 1989a).

85년까지의 발굴로 중기 구석기층(V층)~청동기 문화층(II층)이 층위로 있음이 밝혀졌는데, 중기 구석기층은 주로 사암으로 넓게 발달된 자갈층위에, 모랫돌을 이용한 직접떼기로 만든 굽개·찌르개·주먹대패 등과 같은 다목적 석기가 출토되고 있다.

후기 구석기 문화층(IV층)은 찰흙층으로 수양개유적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기의 감은 90% 이상이 셰일(shale, 板岩) 모난돌로, 직접떼기에 의한 수법이 더 많이 쓰였으나, 돌날수법이나 눌러떼기수법과 같은 간접떼기수법도 쓰이고 있으며, 여기에 잔손질을 베풀어서 만든 세련되고 훌륭한 석기들이 많다.

이들 연모 가운데 특히 서구의 무스페리앙 형식과 비교되는 주먹도끼도 출토되고 있으며, 날의 양쪽을 떼어

휘임날을 만든 전형적인 짝개도 다양하다. 이러한 연모에 주의를 더한 것은 많은 수의 스페찌르개가 발굴되었다는 점이다(그림 13).

나무에 끼워 쓸 수 있게 만든 스페찌르개는 일본 구주지방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과,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출토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이용조·윤용현, 1992b).

수양개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인 배모양 석기(그림 13)가 약 200점이 발굴되었는데, 크게 I·II·III형식으로 구분된다. II형식(일본의 유우베스기법과 유사함)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로는 공주석장리에서 영향을 받아 배모양석기 제작기술을 발달시켜 한 줄기는 남쪽의 전남 승주 곡천·화순 대전으로, 또 한 줄기는 북쪽의 평양 만달리를 거쳐 웅기 굴포리→우스티노브카→(사할린)→일본 북해도로의 전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이용조, 1989b : 이용조·윤용현, 1992a : 1992b).

이러한 연모 이외에 이 유적의 중요성을 더하여 주는 것은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들이다. 많은 곳에는 수집 점이 그대로 묻혀 있다가 발굴되어, 돌망치-모룻돌 등과 같이 석기제작행위의 복원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가 49군데나 있으며, 이 행위의 중심지(center)가 유적에 넓게 펼쳐져 있어서, 계속적인 발굴조사에서 더 찾아질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그들의 식량채집-사냥에 따른 자료 이외에, 당시 사람들의 사냥대상물에 관한 풍요 기원이나 잘 잡혀지길 바라는 기원-주술예술(magic art)의 표현으로 보아, 그들의 의식구조를 밝혀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첫소(原牛)의 정강이뼈에 「물고기모양」을 새긴 예술품(8.2×3.5 cm)이 그것이다.

이처럼 3년에 걸쳐 발굴한 면적 이외에도 유물이 출토되는 범위는 지금까지 조사한 20배 이상의 지역에 펼쳐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용조, 1985).

이 수양개유적은 유물의 종류·제작수법 및 유물수에서 국내 최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적지로서 우리나라 선사유적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IV. 결 론

우리나라 역사연구에서 선사시대 특히 구석기연구는 우리 겨레의 기원과 문화의 원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1960년대에 이를 때 까지도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던 구석기시대 연구가 오늘날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하겠다.

광복이후 한국사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확인과 수용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60년대 중반까지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구석기시대의 연구는 그동안 전공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논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다루는 시대가 되었고,

아울러 5천년전의 단군의 역사에서 구석기시대에서도 전기인 70만년전까지로 올라가게 한 점은 학사적인 위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로 밝혀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중원문화권인 남한강일대 라는 점이다. 즉 충주댐 수몰지구의 일환으로 발굴된 단양 금굴에서는 약 70만년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 남한강과 금강 상류 일대의 자연조건이 당시 선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생활 터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구석기연구의 첫 장을 연 공주 석장리, 또한 76년부터 83년까지 10차에 걸쳐 발굴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중요한 구석기 유적지로 등장된 청원 두루봉동굴과 단양 구낭굴(86년, 88년)/제천 점말용굴(73년~80년)/단양 상시 바위그늘(81년)/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조사로 발굴된 단양 수양개/제천 큰길가/제천 창내 등과 같은 유적과,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지표조사에 의해 밝혀진 청주시 개신동/청원 진사골/아득이/옥천 막지리 막기/용호리 방개/보은군 사탄리/중원 조동리/용교리유적 등과 최근에 조사된 충주 금제/금릉일대를 비롯하여 보고된 유적만 33곳 (발굴조사 11곳, 지표조사 22곳)이나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석기유적이 중원문화권 일대에 밀집되어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발굴된 구석기유적 30여곳 가운데 1/3이 중원지방에 집중되고 있음에서도 그 중요성과 의미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출토되는 유물에 있어서도 한대유적에서의 훌륭한 석기와 동굴유적에서의 각 시기에 살았던 풍부한 짐승화석이 같이 출토되어, 이 방면 연구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구석기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며 구석기 학자들이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당시에 살던 사람뼈가 두루봉/용굴/상시/구낭굴 등 모든 동굴유적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훌륭한 석기와 뼈연모/동물화석과 함께, 이러한 연모와 동물을 잡아 먹었던 주인공인 사람뼈의 3조건이 두루 갖추었다는 사실로서, 그 만큼 중원문화권이 『구석기문화의 보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어서, 옛 인류화석의 출토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할 경우 중원문화권에서 자료를 우선 다루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다르게 조사가 완전히 끝난 유적이 거의 없음과, 이러한 유적에 대한 보존 또는 매우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자칫하면 없어지게 될 처지에 놓인 점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하겠다.

인 용 자 료

- 김원용, 1967. <公州 馬岩里洞窟遺蹟 豫報> 《歷史學報》35·36, 26~41.
- 김현길, 1984. 『中原의 歷史와 文化遺蹟』(청지사)
 , 1991. 『中原文化 散策』(청지사)
- 박선주, 이용조, 1992. “A New Discovery of the Upper Pleistocene Child’s Skeleton from Hungsu Cave(Thrubong Cave Complex), Chongwon Korea” *Chronostratigraphy of paleolithic of North, Central, East Asia and America (Novosibirsk, Russia) 151~162.*
- 박희현, 1983. <충북 제원군 창내유적의 문화성격> 《湖西文化論叢》2, 57~88.
 , 1984. <堤原 沙器里 後期舊石器遺蹟 發掘調査報告>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충북대학교 박물관) 187~269.
 , 1989. <제원 창내 후기구석기문화의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0. <창내 후기구석기시대 막집의 구조와 분석> 《博物館紀要》6, 5~28.
- 손보기, 1967. <충위를 이룬 석장리 구석기문화> 《역사학보》35·36, 1~25.
 , 1968. <석장리의 자갈돌. 짝개 문화층> 《韓國史研究》1, 1~62.
 , 1969. <石壯里 이외의 舊石器文化의 分布可能性> 《白山學報》7, 1~24.
 , 1970. <石壯里의 새기개·밀개文化層> 《韓國史研究》5, 1~46.
 , 1972. <石壯里의 전기·중기 구석기 文化層> 《韓國史研究》7, 1~58.
 , 1973a. <石壯里의 후기구석기시대 집자리> 《韓國史研究》9, 3~57.
 , 1973b. <舊石器文化> 《한국사》1. 국사편찬위원회, 9~46.
 , 1974. <한국 구석기시대의 자연-특히 점말동굴의 지층별 꽃가루 분석과 기후의 추정> 《한불연구》1, 9~31.
 , 1975a. <제천 점말동굴 발굴 중간보고> 《韓國史研究》11, 9~53.
 , 1975b. “Paleolithic Excavation in Korea”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 Prehistory* Pearson R.K ed. 30~41(Univ of Hawaii).
 , 1978a. “The Early Paleolithic Industries of Sokchang-ni, Korea” *Early Paleolithic South and East Asia* Ikawa-smith. F., ed, 33~45.
 , 1978b. <한국 구석기문화의 연구> 《韓國史研究》19, 1~28.
 , 1980. <점말 용굴 동굴> 《점말 용굴 발굴보고》(연세대학교 박물관)
 , 1984a. <상시 1그늘 옛 살림터>(연세대학교 선사연구실)
 , 1984b. <丹陽 烏潭里地區 遺蹟發掘 調査報告>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충북대학교 박물관 15~99.

- , 1985a. 〈丹陽 烏潭里 금굴 遺蹟發掘調查 報告〉《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延長發掘 調查報告書》충북대학교 박물관 5~100.
- , 1985b. "Homo sapiens" *L'Anthropologie* 89-1, 147~150.
- , 1988. "Bone Tools of Yonggul Cave at Chommal, Korea" *The Palaeoenvironment of East Asia from the Mid-Tertiary*(Centre of Asian Studies, Univ. of Hong Kong) II, 1124~1185.
- , 1989. "Intentional Incisions on the Bone at Yonggul Cave, 60,000B.P. - the Origin of Art at *Homo sapiens* Stage" Presented Paper to *Int. Sym. on Palaeoethnology in Commemoration of Anniversary of the Discovery of the First Skull of Peking Man*(IVPP, Beijing).
-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용굴 유적〉《博物館紀要》5, 단국대학교 박물관, 149~172.
- 손송이, 1988. "Contribution á l'Etude des Retes Humaines des Os Pariétaux Découverts á Sangsi, Corée du Sud"《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 論叢》(지식산업사) 137~178.
- 이용조,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 전통유물의 몇 예〉《白山學報》20, 5~66.
- , 1979. 〈청원 샘골 구석기유적〉《大清댐 水沒地區 遺蹟發掘 報告書》충북대학교 박물관, 7~40.
- , 1980. 〈대청댐 수몰지역의 구석기 유물〉《韓國史研究》28, 3~38.
- , 1983. 《청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문화의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84a. 《한국의 구석기문화(II)》(탐구당)
- , 1984b. 〈丹陽 수양개 舊石器遺蹟 發掘調查 報告〉《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충북대학교 박물관 101~186
- , 1985. 〈丹陽 수양개 舊石器遺蹟 發掘調查 報告〉《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延長發掘 調查 報告書》충북대학교 박물관, 101~252
- , 1988a. 〈청원 두루봉 새굴, 처녀굴의 자연환경연구-식물상의 자료를 중심으로-〉《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29~67.
- , 1988b. 〈단양 수양개 후기 구석기문화〉《한국학의 과제와 전망》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8~383
- , 1989a. "The Upper Paleolithic Stone Artifacts with Special Reference to Micro-blade Cores from Suyanggae Site, Korea" Presented Paper to *International Symposium on Paleoanthropology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iscovery of the First Skull of "Peking Man"*(Beijing, China), 1~30.
- , 1989b. 〈단양 수양개 후기구석기시대의 배모양석기의 연구〉《古文化》(한국대학박물관협회) 35, 3~77.

- , 1992. 〈한국 구석기연구의 오늘과 내일〉 《제1회 학술발표회 韓國 先史 考古學 研究의 오늘과 내일》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5~29.
- 박선주, 1991. 《清原 두루봉 홍수굴 發掘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 박선주·우종윤 1991. 《단양 구낭굴 발굴보고(I)-1986·1988년도 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 하문식·윤용현 1992. "Reconstruction of Upper Paleolithic Dwelling at Taejon, Korea" Presented paper to *Int.Sym. Paleocology and Settling of the Ancient Man In North Asia and America*(Krasnoyarsk, Russia)
- 윤용현, 1992a. "Mocro-Blade Corse from Suyanggae Site" *Chronostratigraphy of Paleolithic of North, Central, East Asia and America*(Novosibirsk, Russia) 135~146.
- , 1992b. "Tanged-points and Micro-blade Corse from Suyanggae Site, Korea" Presented paper to *Int.Sym. Micro-blade Industry in Northern Eurasia and Northern North America*(Sapporo Univ. Japan).
- , 1992c. 《和順 大田 舊石器時代 집터 復元》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 최무장, 1984. 〈堤原 鳴梧里 B地區 遺蹟發掘 調査報告〉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I)-》 충북대학교 박물관 3~122.
- , 1986. 《韓國의 舊石器文化》 (예문출판사)